

# 「양정OB산악회」白頭山

백두산정복을 기를 만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 한국능반대로선 解放後 첫등정 昨年연말 中國 거쳐 7시간만에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양정OB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1989년 3월1일 경향신문 1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해방 후 백두산 첫 등정 양정산악회가 해 냈다!!!  
5페이지에 적색 원형 표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 「양정OB산악회」 白頭山(백두산) 정복

경향신문 | 1989.03.01 기사(뉴스)

### 「양정OB산악회」 白頭山(백두산) 정복

한국등반대로선 解放(해방)후 첫등정

昨年(작년)연말 中國(중국)거쳐 7시간만에

「산은 더높은 곳에서,더욱알수없는 곳에서 신비의 미소를 머금고 클라이머의 강렬한 의지를 기다린다. 끝없는 추구,끝없는 도전,클라이머에 있어서 산은 영원하다」

한국등반대가 지난해말 산악인으로서는 해방이후 최초로 「겨레의 영산」 백두산 등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대원들은 서울 양정고출신들로 구성된 「양정OB산악회」 회원들로 등반대장 洪龍杓(홍룡표)씨(46·안국화재근무)를비롯한 朴政憲(박정헌)씨(28·이크만사)禹錫燾(우석희)씨(30·신흥공작)등 산악인 12명.

비록 북한령 백두산을 직접 가지못하고 중국을 경유,중국령 백두산에 오를수밖에 없어 국토분단의 비극을 새삼 되새겨야 했지만 젊은 산악인들에게는 해방이후 43년여동안 품어온 꿈을 드디어실현한것.

국교 미수교등으로 인해 불가능한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산악인의 백두산등정이 계획된것은 지난해초로 지난43년 등정이후 실로 45년만의일.

한자의 한글변환 시 두음법칙이나 동자이름 적용이 다소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자사전 바로가기](#) >



「양정OB산악회」崔柄德(최병덕)회장이 지난해9월 중국국제여행사와 「이번 등반활동은 한·중 젊은이들의 장기적인 교류의 시작으로 한국 산악인들의 성공적인 백두산등반완수를 위해 양국은 우호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하고백두산등정허가를 받았다.

당시 등정의 목적은 한국젊은이들의 국토순례외에도백두산의 기후및 생태계조사와 백두산등산 정보자료수집등이었다.

설렘속에 일정을 서두르던 대원들은 여권수속과정에서 비수교국을 경유하는 어려움에 부딪쳐 예정보다 10일늦는 10월29일 대장정에올랐다.

서울~동경~북경~장춘간은 비행기로,장춘서 연길까지는 12시간에걸쳐 열차를이용한 등반대는 트럭1대,지프1대,버스1대등 3대의차량을동원,연길~송강~장백간의 이역을 이틀동안 달렸다.

장백의 스키훈련장(해발1천8백m)에 베이스 캠프를차린 등반대는 11월5일 짙짙은 백송들의 울창한숲길을 7시간동안 등반한끝에천지에 올랐다.

눈보라에 휩싸인 백두산은 「겨레의영산」답게 웅장했다.섭씨영하15도의 강추위와 초속30m의 강풍이휘몰아쳤다.

천지에 이는 파도는 마치바다의 그것과 같았다. 물은비취처럼 맑았다.순간적으로 갈증을 느낀 대원들은 물을손으로 몇웅큼씩 퍼마시며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한자의 한글변환 시 두음법칙이나 동자이름 적용이 다소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자사전 바로가기](#)



하지만 황홀경도 잠시, 지척에 둔 북한땅을 바라보며 이내 숙연해졌고 젊은이들의 장도에 함께한 50대 초반이북출신대원은 눈물까지 지었다.

"실체도 없는 금하나 그어놓고 반은 북한, 반은 중국이라니 어찌된 일인가" 신음섞인 흐느낌도 일었다.

얼마후 다시금 환희에 젖어든 대원들은 백두산을 온통 담아오려는듯 카메라셔터를 누르고 비디오카메라를 돌렸다.

아쉽지만 어쩔수없는 하산길, 대원들은 비바람과 파도에 깎인 돌맹이를 소중히 배낭에 주워담으며 곳곳에 얼음이 깔린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백두산의 모습을 망막에 새기려는듯 자꾸 되돌아보는통에 발걸음은 더디어갔다.

베이스캠프로 돌아온 대원들은 일제하의 젊은이들이 나라 잃은 설움과 울분을 터뜨리며 드나들었을 법한 산하를 40여년만에 국토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어렵게 찾아왔다는 감회때문인지 피곤함도 잊은채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난 57년 고1때부터 등산을 시작, 30여년동안 산악부활동을 해왔다는 洪(홍)대장은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북한에있는 산악인들과함께 한라산에서 지리산을 거쳐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의 대장정을 하고 싶은것"이라고 산악인다운 소망을 펼친다.

禹錫燾(우석희)씨는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을 원했었으나 시간과 경제적이유등으로 포기한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멀지않은 장래에 남북한 젊은이들이 서로 손을

현재 회원이 2백여명인 「양정OB산악회」는 「백두산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43년여름의 사진과 88년말 겨울의 사진을 지난 1월 25일부터 5일간 롯데백화점 7층미술관에 전시한것을 비롯,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대도시를 돌며 사진전을 열고이를 사진첩으로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양정산악회」가 태동한것은 37년 3월 고교생들의 지리산종주등반이 국내 최초로 이뤄진뒤 다음달인 4월 양정고교에 산악부가 생기면서부터.

당시 일제하의 암울한 상황속에서 젊은이들의 기개를 기르고 국토애를 북돋우며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젊은이다운 기상을 고취하기위해서였다.

그후 졸업생들은 각대학의산악부를 창설하는 산파역을맡았으며 43년여름에는 15명의 대원이 국내최고봉 백두산을 정복했다.

끊임없는 활동을 펼치면서도 일제말기와 6.25동란등사회적 혼란기때는 존폐의기로에 서기도 했는데 66년졸업생들의 모임인 「양정OB산악회」가 발족,고교 OB모임의 효시를 이루며 본격적인 등반활동을 시작했다.

이렇듯 세계적 고봉과 명산을 섭렵하고 갖은 고난과위험을 극복하며 젊음의 열정을 불태워온 산악인들이정작 지척인 백두산만은 자연의 거센반항보다 더 두려운 「분단의장벽」에 막혀 오를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꿈도 지나해말드디어 이루어냄으로써 한국의젊은 산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게됐다. <金鳳先(김봉선)기자>